

작품 내용

제 목	타인의 노력을 존중하는 법, 저작권
내 용	“애들아, 오늘은 예고한 대로 미술 수행평가가 있는 날이야. 주제는 미래 AI의 모습 그리기고. 그럼 시작한다.” 선생님은 부드러운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하...’ 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나는 미술을 잘하지 못한다. 특히, 그림 그리는 것에 소질이 없어서 항상 그림 그리기 수행평가를 보면 아쉬운 점수를 받곤 했다. 반면 내 친구 윤서는 우리 반에서 미술을 제일 잘한다. 아무리 내 친구이지만, 풍부한 상상력, 손재주 등 미술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부러웠다. 다행히, 이번에 자리가 앞뒤로 배치되어 미술에 관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지...?’ 나는 막막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 자신감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 내 앞자리에 있는 윤서의 그림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주 잘 그린 미래 로봇이 그려져 있었고, 굉장히 멋졌다. ‘베낄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안 돼, 남의 걸 베끼면 안 되지...’ 나는 곧바로 생각을 고쳐먹고는 다시 내 그림에 집중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윤서의 그림이 계속 아른거렸다. ‘그래, 아주 살짝은 베껴도 될 거야...’ 나는 윤서의 그림을 조금씩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윤서의 시선이 조금 느껴지긴 했지만, ‘이 정도는 팬참을 거야’ 고 생각하며 넘겼다. “애들아, 미술 수행평가 점수가 나왔어. 번호대로 줄 서서 받아 가~.”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며 말씀하셨다. 나는 기대되는 마음에 재빨리 받으러 갔다. 받고 보니 점수가 A였다! 난생처음 받아 본 점수에 나는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윤서의 그림을 살짝 베낀 것이 양심에 찔리긴 했지만, 그래도 난 생처음 A를 받아보니, 내심 기분이 좋았다. 그날 4교시, 선생님이 4교시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말씀을 하셨다. “애들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 오늘 미술 수행평가에서 미술 잘하는 윤서의 그림을 베낀 사람이 있다고 익명 제보가 들어왔거든? 애들아, 우리가 직접 그린 그림은 다 저작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 목격자나 부정행위 한 사람은 내일 종례 시간까지 자수하도록 하렴.”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하셨다. 그 말을 듣고 순간 나는 눈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했는데... 어찌지...?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두려운 나머지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렸다.. ‘말해야겠지...?’

혼날 것 같아 무서웠지만, 나는 용기 있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종례가 끝나고, 나는 선생님께 가서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사실 윤서 그림 베낀 거 제가 했어요.. 죄송해요.. 다른 친구의 그림을 마음대로 따라 그리면 안 되는 줄, 그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지우 네가 한 것이구나. 우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지우야, 혹시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니?” 선생님은 다정하게 말하셨다.

“음...작품이나... 권리요..?” 나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다.

“저작권은 그림뿐만 아니라 글, 사진 영상, 음악처럼 사람이 만든 모든 작품에 생기는 권리란다. 누군가의 작품을 허락 없이 복사하고,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근데 출처가 있거나 인터넷, 보이는 곳에 있으면 마음껏 써도 된다는 거 아니가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아니야, 저작자가 인터넷에 보라고 올렸어도, 그 작품을 저작자 허락 없이 쓰면 안 된단다.” 선생님이 말하셨다.

“그럼 그런 작품이나 사진을 쓰고 싶을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나는 점차 호기심이 생겼다.

“응, 출처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대부분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자료인지도 확인해야 해.” 선생님은 저작권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아 그러면, 출처만 밝히고 써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응, 그렇지.”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친구한테 보내고 싶을 때는 허락받기가 힘들지 않은가요?”

“그때는 그 사진의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란 다. 만약 지우가 공들여 그린 그림을 누군가가 베끼고,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나는 생각만해도 불쾌해서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도 유통 링크 차단 등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지켜 주고 있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윤서에게 사과하러 가기로 했다.

“윤서야, 내가 너의 그림을 베끼고 내가 그린 것처럼 해서 미안해.. 네가 그림을 잘 그려서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살짝 베낀 건데.. 그것의 저작권이 너에게 있다는 걸 내가 몰랐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윤서는 나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그동안 나는 인터넷상이나 친구의 그림을 가져와서 누구에게 보내거나 베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진 사진, 글 등은 베껴도 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선생님께 저작권을 배우고 나서, 나는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처음에 저작권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저작권은 단순히 법으로 금지하는 규칙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저작권은 창작자의 저작권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방패라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나는 우리들이 저작권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지금부터 알고 예방하면 저작권 침해 사고도 줄어들고, 더욱 성숙한 생활이 될 거라 믿는다.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저작권도 당당하게 지킬 것이다. 앞으로는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시대가 오더라도,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함부로 베끼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저작권을 존중하며 올바르게 이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